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360호 2020년 1월 9일 목요일

[금융]
하나금융그룹
飛上 2020전략
08

코스피	코스닥
2151.31 (-24.23)	640.94 (-22.50)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1.36 (+0.03)	1170.80 (+4.40) (8일)

三電(삼성전자) 실적 바닥쳤다 영업익 7조대 유지(4분기)

지난해 누적 영업익 27조 전년도 보다 53%나 급감

4분기는 시장 전망 웃돌아 올해부터 본격 개선 기대

삼성전자는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9조원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4.84%, 영업이익 8.74% 줄었다.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조1000억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한해의 누적 매출은 229조5200억원이다. 전년(243조7700억원) 보다 -5.85%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누적 영업이익은 27조7100억원으로 전년(58조8900억원) 보다 52.95%나 크게 쪼그라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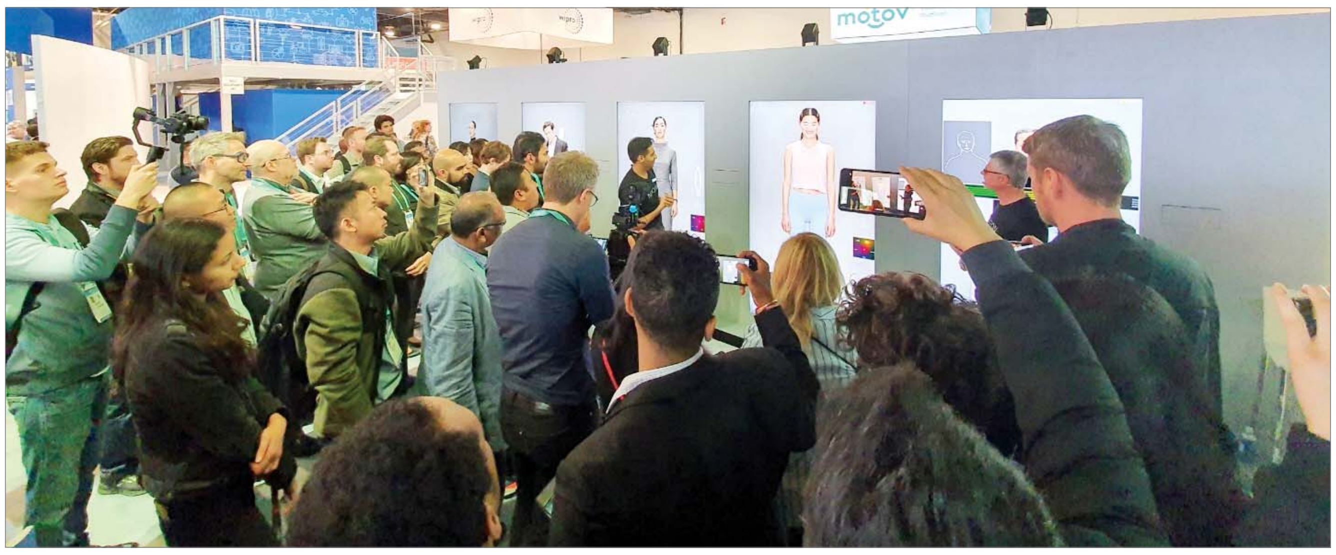
단, 전년과 비교해 4분기 영업이익 감소폭이 연중 수치와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4분기 실적 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는 얘기다.

기대치가 높아진 시장 전망도 충족했다. 업계에 따르면 평균 전망치는 매출액이 60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 정도다. 매출액이 약간 낮았지만, 영업이익은 10% 가까이 높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들어 전년보다 크게 낮은 실적을 이어왔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분기에는 -60.15%, 2분기에는 -55.63%, 3분기에는 -55.75% 등이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해,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실적 공시에 앞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왔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네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네온을 보기 위해 모여있다. /구서윤 기자

삼성 인공인간 기술에 CES 발칵 뒤집혔다

CES 2020

비밀리 진행한 인공인간 '네온' 공개
말부터 행동까지 다양한 모습 구현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무서울 정도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장을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상태로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보통은 약간의 어색함이 들기 마련이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진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도 쉽다. 기계나 아바타라는 티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사람인지 '가짜'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했다.

삼성전자가 비밀리에 진행한 인공인간(Artificial Human) 프로젝트 '네온(NEON)'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서 베일을 벗었다. 네온은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 산하 연구소 '스타랩'이 공들인 인공인간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네온은 단순한 'AI 비서'가 아니고 '친구'다. 사람과 똑같은 친숙한 모습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네온을 만나보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화면을 통해 네온을 처음 접했을 때는 '사람 영상 나오는 게 무슨 혁신이라는 걸까'하는 생각을 했다. 눈을 깜빡이는 것부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까지 모두 실제 인간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서야 인공인간이라는 걸 알았다.

이러한 탓에 인공인간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30분 간격으로 진행된 시연에는 매시간마다 네온의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시연을 본 이들의 입에선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심지어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는 반응도 들렸다.

인공인간 네온은 말부터 행동까지 다양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태블릿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대로 말한다.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표정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눈썹이나 입모양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절 가능하다. 시연자가 '말을 하면서 눈썹을 위로 움직이도록' 설정하자 네온은 그대로 했다. 버벅거리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카메라도 인공인간인 네온을 사람으로 인식했다. 네온의 눈이 감긴 채 사진이 찍히자 스마트폰 화면에는 '눈을 깜빡였어요'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인공인간이지만 뇌도 존재한다. 웃도록 입력하고 나서 뇌의 상태를 보니 '행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인간이 상용화되면 손님을 접대하거나 운동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등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네온 관계자는 "아직 상용화에 대한 생각은 없고 다양한 회사와 협업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CES 2020 관련기사 3, 4, 5면

이란, 美 공격… 증시 급락

코스닥지수 3.39% 떨어져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 소식이 들려오며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곧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코스닥지수는 3.39%나 급락했다. 전일보다 22.50포인트 하락한 640.94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종목은 91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종목은 1222개로 집계됐다.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지수도 1% 넘게 떨어졌다. 전 거래일보다 24.23포인트(-1.11%) 하락한 2151.3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역시 한 때 1.74%까지 떨어졌으나 오후부터 진정세를 찾으며 낙폭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예상을 웃돈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 불안한 증시 속에도 시가총액 1·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1.79%)와 SK하이닉스(3.62%)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라크 군 당국은 8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기지를 목표로 총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아시아 주요 증시도 타격을 받았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이날 1.57% 하락했고, 홍콩H지수도 1% 이상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0원(0.38%) 오른(원화값 하락) 117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연주 연구원은 "이란과 미군의 충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지만 금융시장 영향은 단기 충격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기자 alvin@

재정 62% 상반기 집행… 公기관에 60조 투자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SOC 예산 30%, 일자리 37% 등 예타 조사기간 10→7개월로 단축

정부가 4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